

中企, 삼성 스마트공장 지원에 날개… 제조혁신·생산성 ‘쑥’

‘스마트비즈니스엑스포’ 코엑스서 개최
삼성 지원 中企 53개社 성과 공개

선일금고, AI로 도장 불량 판별
불량률 3%서 0.5%로 감축 목표

대기업 등 60여곳, 中企 6800곳 지원
李 장관 “대기업 자본·기술 공유해야”

1972년 창업해 전 세계 100여 개국에 ‘K-금고’를 수출하는 등 50년 넘게 한우 물을 파며 국내 1위의 점유율로 시장을 이끌고 있는 선일금고.

역사와 명성을 갖고 있는 선일금고가 최근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공장 도입을 통해 금고 제조 과정에서 생기는 불량률을 최소화하는 등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선일금고는 지금까지 5회에 걸쳐 스마트공장 구축을 진행하는 동안 시스템들을 전산화하고 제조실행시스템(MES)을 구축하는 등 모든 공정에 대해 스마트화를 끝냈다.

선일금고 신동열 연구소장은 “모든 금고는 도장 과정을 거쳐야하는데 도장 품질 개선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AI 비전 카메라를 도입, 도장 불량 여부를 판단하고 제조 과정에서 남아 있는 기름을



1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6 스마트비즈니스엑스포(Smart Biz Expo) 개막식’에서 이소영 중기부 장관(왼쪽 5번째) 등 참석자들이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중기부

뺀다는 공정을 표준 레시피로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이를 통해 기존에 3% 수준이던 불량률을 0.5%까지 낮추고 폐기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일금고를 포함해 삼성전자로부터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을 받은 기업들이 혁신성·생산성을 제고하며 ‘두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

이들 구축기업 53개사는 13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스마트 비즈 엑스포 2026’에 모습을 드러냈다.

‘스마트비즈니스엑스포’는 삼성전자와 함께 스마트공장 구축으로 제조현장을 혁신한

중소기업의 우수 제품과 기술을 전시하고 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상생협력 행사다. 올해엔 생활용품·산업용품·기계설비·부품 소제·생활가전 37개사, AI 특별관 6개사, 상생마켓 10개사가 참여했다.

선일금고, 터보링크, 프리피아, 오토스, 윗티컴 등 AI 특별관에 참여한 기업들은 상생형 스마트공장 ‘AI트랙’을 통해 사업비의 75%(최대 3억원)를 지원받아 생산현장에 적용한 제조AI 기술과 성과를 뽐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정부는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총 1793억원 규모의 지원금을 통해 2700여개사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

중소기업 현장의 제조혁신을 돕고 있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이날 행사 개막식 인사말에서 “지금 우리 경제가 마주한 가장 큰 과제는 양극화인데,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격차를 줄이고 성장의 온기가 현장에 닿기 위해선 대기업의 자본과 제조혁신 노하우를 중소기업과 나누고 함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며 “AI 대전환 시대에 이제 스마트공장도 생산 자동화 단계를 넘어 AI가 현장의 판단을 돕고 제조경쟁력을 근본부터 끌어올리는 제조AI 혁신으로 한 단계 더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진행한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사업에는 삼성전자를 포함해 60여개 대기업

과 공기업이 참여해 총 6800여 개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해 왔다.

지원받은 중소기업들이 제조현장의 체질을 바꾸고 생산성과 품질 향상 등의 성과를 거뒀음은 물론이다.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상근부회장은 “앞으로 10년, 양극화의 주요 변수는 AI가 될 것”이라며 “지금부터 중소기업의 AI 도입과 AX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미래의 양극화 심화를 최소화할 수 있는 만큼 AI가 노동, 자본, 기술과 같은 필수 생산 요소의 하나로 인식되고 중소기업 현장에 널리 적용될 수 있도록 중기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엔 경기도 군포에 있는 중소제조기업인 디팜스테크를 찾아 디지털 전환과 AI가 실제 생산공정에 적용되는 현장을 직접 확인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다양한 현장의견을 수렴해 디지털 전환부터 피지컬 AI 도입까지 이어지는 단계별 지원정책 강화, 제조AI 핵심인력 육성 등을 추진하고 피지컬AI 등 국가 전략프로젝트의 온기와 성과가 중소기업까지 이어져 중소기업이 당당한 주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metro

삼성·LG, AI 앞세워 미래시장 공략

한국전자전서 신기술·제품 공개
삼성, AI 가전으로 생활 편의성 강화
LG, 데이터센터 냉각·B2B 사업 확대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한국전자전에서 AI 가전과 데이터센터 냉각 기술을 앞세워 시장 공략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집안 일을 돕는 인공지능(AI) 기능으로 제품 경쟁력을 높이고, LG전자는 가전 기술을 냉각 설비와 로봇 부품으로 확장해 기업 간거래(B2B) 사업을 강화한다.

양사는 13일부터 16일까지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리는 ‘제57회 한국전자전(KES 2026)’에 참가한다고 13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869㎡ 규모 전시관에 가전·TV·모바일 체험 공간을 마련했으며, LG전자는 902㎡ 규모 전시관을 생활 공간과 산업용 기술을 소개하는 두 구역으로 구성했다.

◆삼성, 식재료 관리·세탁까지 AI 적용
삼성전자는 식재료 관리와 세탁 조건

설정 등 사용자의 번거로움을 줄이는 AI 기능을 소개한다. ‘비스포크 AI 패밀리허브’ 냉장고에는 내부 카메라로 식재료를 인식하는 ‘AI 푸드매니저’를 탑재했으며 일체형 세탁건조기 ‘비스포크 AI 콤보’는 세탁물 상태에 따라 세탁 강도와 건조 온도를 자동 조절한다.

이처럼 가전 사용의 편의성을 높이는 AI 기능은 TV에도 적용됐다. 대화형 기능인 ‘비전 AI 컴패니언’은 사용자의 질문에 답하거나 시청 중인 콘텐츠의 관련 정보를 안내해 별도의 검색 과정을 줄여준다.

모바일 공간에서는 폴더블 스마트폰의 화면 활용성과 휴대성을 강조했다.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와 201g 무게의 폴드8를 체험할 수 있도록 했으며, 헤리티지존에서는 첫 갤럭시 폴드부터 최신 모델까지 기술의 발전 과정을 소개한다.제품 체험과 연계한 구독 상담도 진행한다.

◆LG, 냉난방·모터 기술로 B2B 사업 확대

LG전자는 약 60년간 축적한 냉난방공조 기술을 활용한 AI 데이터센터 냉각 설비를 선보인다. 차가운 물을 만드는 칠러와 냉각수 분배장치(CDU), 반도체의 열을 흡수하는 쿨드 플레이트를 함께 배치해 반도체에서 발생한 열을 처리하는 과정을 소개한다.

이 같은 냉각 기술은 대규모 공급 계약으로 이어지고 있다. LG전자는 최근 북미 인프라 기업 에어와 장기 계약을 맺고 총 5기가와트(GW) 규모 AI 데이터센터에 칠러 등을 순차 공급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관련 수주액은 6000억원을 넘어섰으며, 에어와는 CDU 공급도 논의 중이다.

냉난방공조와 함께 가전 모터 기술도 산업용 부품으로 확대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세탁기 DD모터 기술을 로봇 관절의 핵심 부품인 액추에이터로 발전시킨 과정을 소개한다. 생활 공간에서는 집과 차량을 연결하는 AI 기능을 선보인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소진공, 공공배달앱 경쟁력 높인다

인태연 이사장, 상생배달앱 간담회

인태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공공배달앱 경쟁력 제고, 소상공인 사업장 상생모델 발굴을 위해 잇따라 현장 소통 행보에 나섰다.

13일 소진공에 따르면 전날 인태연 이사장은 서울 성수동에서 민간 전문가 및 공공배달앱 관계자 등과 함께 상생배달앱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배달앱 시장의 강력한 과점진단 ▲공공과 민간의 협업 지원방안 ▲공공배달앱 통합운영방안 ▲생활 인프라 주도권 확보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소진공은 공공배달앱과 배달대행사, 배달라이더 노동조합, 민간 전문가, 소비자 및 입점 소상공인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 의견을 수렴해 2027년 상생배달앱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인 이사장은 ‘배달앱은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와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경영 기반인 만큼 공공배달앱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운영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강화해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소진공은 앞으로도 소비자와 입점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이어가며 배달앱 이용 실태와 현장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 완화와 실질적인 경영개선에 도움이 되는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LS머트리얼즈, AI 데이터센터 전력시장 첫발

美 기업과 690억 UC 공급 계약

LS머트리얼즈가 국내 울트라캐패시터(UC) 업계 역대 최대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며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전력 인프라 시장에 처음 진출한다. LS머트리얼즈는 미국 수소연료전지 기업에 약 5150만 달러(약 690억원) 규모의 AI 데이터센터(AIDC)용 UC를 공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지난해 LS머트리얼즈 별도 매출 약 290억원의 2.4배에 달한다. 계약 물량은 오는 2027년 4월부터 약 1년간 순차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며 추가 계약도 협의 중이다.

앞서 LS머트리얼즈는 지난 7월 해당 기업과 약 470만달러(약 63억원) 규모의

초도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11월부터 납품할 예정이다. 이번 계약을 포함한 누적 수주액은 약 5600만달러로, 연내 추가 계약이 성사되면 총 1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기대된다.

LS머트리얼즈는 그동안 풍력발전 터빈과 무인운반차(AGV), 무정전전원장치(UPS) 등에 사용하던 UC의 공급 영역을 AI 전력 인프라로 넓히게 됐다.

최근 AIDC의 전력 수요가 증가하면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수소연료전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UC는 순간적으로 대용량 전력을 충·방전해 급격한 부하 변동에 대응하고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의 출력을 안정화하는 역할을 한다.

/유혜은 기자

한화 K9 자주포, 美 독립연도 만 제식명 획득

美 육군, K9 차륜형에 ‘XM1776’ 부여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차륜형 자주포가 미국 육군으로부터 독립 연도를 상징하는 제식명을 부여받았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3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미국 육군협회 연례 전시회 ‘AUSA 2026’에서 K9 차륜형 자주포(K9MH)의 제식명 ‘XM1776’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8월 미국 육군 기동전술화포(MTC) 사업의 K9MH

시제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이달 시제 1호기를 납품했다. 미 육군은 개발·시험 단계 장비에 ‘X’로 시작하는 제식명을 부여하고, 공식 채택 이후에는 X를 제외한다. 1776은 미국의 독립 연도로, K9이 미국의 자유를 수호하는 장비가 되라는 의미를 담았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 전시회에 약 300㎡ 규모의 전시관을 마련하고 K9MH 실물을 선보였다.

유도탄·발사대 전시구역에는 다연장로켓 천무 발사대와 유도탄 포드 3종, 천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미국 육군협회 연례 전시회 ‘AUSA 2026’에서 제식명 XM1776을 받은 K9 차륜형 자주포(K9MH)를 공개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도탄 실물 크기 모형을 전시했다.

컨테이너형 천무와 컨테이너형 수직발사대(CVLS)를 통해 지상·해상 발사체계 역량도 소개했다. /유혜은 기자 dhalehdale@